

‘아줌마 논객’ 도덕경 풀어내다

인터뷰 도덕경 완역서 낸 이/경/숙 씨

“왕필 이후 2500년간 나온 번역서 모두 오역 ‘충격’ 원문 모두 직접 번역 학자들 내 책 참고하게 될 것”



누가 진정한 노자의 제자일까?

3년전 TV강의로 유명세를 날리던 도올 김용옥 씨를 <노자를 웃긴 남자>란 책을 펴내며 신랄하게 비판해 화제를 모았던 ‘아줌마 논객’ 이경숙씨(44)가 새 책을 내놓았다. 책 제목은 <완역 이경숙 도덕경>(전 2권). 지난번 책 <노자...>가 20장까지의 책을 번역한 ‘도올의 저격음’이었다면 이번 책은 순수한 교양 학술서다. ‘도경’과 ‘덕경’으로 나눠 총 81장의 <도덕경>을 기존의 해석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야말로 ‘이경숙식’으로 완역했다.

이번 책 출간으로 학자의 대열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녀는 “컴퓨터 엔지니어인 남편 김관홍씨(46)와 고3, 초등 6년생인 두 딸을 두고 있는 전업주부일뿐”이라며 “아줌마 논객”의 자리를 고집했다.

중학시절 경전 베껴 쓰면서 한문 읽고 해석하는 눈 띠

▲MBC에서 방송특강을 재개한 김용옥 교수를 의식해 출간 시기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인가.

-이 책은 순수하게 완역에 목적을 두었다. 의도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처음엔 <도경>을 먼저 번역해 원고의 절반은 2년 전에 이미 출판사에 넘겼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덕경>을 지금에야 완역했을 뿐이다.

▲열몇 책을 훑어 보아도 한문은 물론 동양학 전반에 관한 내용이 풍부하다. 평범한 아줌마가 정식 교육을 받지 않고 고전을 번역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데, 정말 한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인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간다. 다시 말하지만 동양학이나 한학에 관한 전통적 교육과정을 밟은 적이 없고, 스승도 없다. 다만 중학교 시절부터 불자인 어머니를 따라 <반야심경> <금강경> 같은 불경과 함께 <도덕경>을 베껴 쓰면서 한문 읽는 눈을 조금 뜬 것이 전부다. 처음에는 의미도 모른 채 그림 그리듯 따라 해보다가 어느정도 시기가 되자 자연스럽게 뜻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감각이 몸에 배게 됐다.

▲한문 문법이 번역하면서 큰 문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에는 <노자를...>의 독특한 화법에 일단 고개를 끄덕였던 동양학자들도 지금은 대체로 이씨의 ‘파격적 문법’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시중 서점에 나가서 문법에 맞춰 해석했다는 <도덕경>이나 <노자>의 책들을 살펴봐라. 오히려 번역의 일관성이 없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도덕경>은 한문 문법이 성립되기 이전의 책이다.

학자들이 후대에 형성된 문법의 틀에 맞추려다 보니가 노자의 본래 목소리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내가 비난한 도올뿐 아니라 왕필(王弼)도덕경 이후 2500년 동안의 번역과 해설이 모두 잘못된 것을 보고 충격 받았다. 원문을 직접 번역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오역과 해설을 모아서 다시 책으로 엮으면서 오역의 역사가 반복돼 온 것이다. 나는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원문을 직접 번역했다. 그래서 앞으로 노자 관련 책을 쓰는 학자는 내 책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그렇다면 이번 책에서 지은이가 왕필 이후 잘못 읽고 있다고 들었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달라.

‘백독불여일필’이라 생각 책속에 따라쓰기란 만들어

-도덕경 81장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1장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을 ‘도를 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 이름이 도인 것은 아니다. 즉 어떤 이름으로 이름 붙일 수는 있지만 언제나 그 이름이 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한 것이나, 10장의 ‘載營魄抱一能無離乎(재영백포일능무리호)’를 ‘온 나라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것이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은 기존 해석과 크게 다르지만 이해가 훨씬 쉽다.

▲<도덕경>은 한마디로 어떤 책인가?
-여러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특히 겸손과 하심을 강조한 책이라고 본다. 요즘



이경숙은 누구 1960년생인 이경숙씨는 3년 전 <노자를 웃긴 남자>를 펴내 도올 김용옥 교수를 매섭게 몰아붙여 오프라인에서 크게 주목을 끌었다. 1999년 출판한 종교 서적 <미움의 여행>도 인터넷에 연재하다 우연한 기회에 (정신세계사 과학총서)로 출판된 것. 현재 그녀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름카페(http://clouds.or.kr)에서 <육아일기>, <기란 무엇인가?>, <개천축>, <황제>, <근대 해산사> 등을 연재하고 있다.

같이 혼란한 시대에 정지하는 이들이 보면 배울 것이 많은 책이다. ▲저자로서 이 책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체계적 한학 수련 없이 불경을 필사하면서 깨달은 한문 해석 비법의 한 가지가 바로 ‘백독 불여일필(百讀不如一筆)’이다. 눈으로 따라 읽을 때에는 의미가 불분명했던 것도 한 번 직접 써보면 그 뜻을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직역과 자구 해석, 친필하고 재미까지 곁들인 주는 물론, 꼭 해당 구절을 써보도록 따라 쓰기를 만들었다. 꼭 한번 써 보길 바란다. ▲고전 번역을 계속할 생각인가. -도덕경을 가볍게 이야기한 에세이와 손자 병법 책이 올해 안으로 나온다. 손자병법은 병법에 관심을 가진 터라년부터 꼭 번역해 보고 싶은 책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실력이 된다면 불자인 만큼 불경 번역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원력을 실현시키고자 틈만 나면 집 인근에 있는 마산 불국사를 비롯해 명찰 들을 순례한다. 명상 퍼즐과 권 1권8천원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I SHOP therefore I AM!’(내가 소비하는 것이 나를 말해준다)

최근에 정말 기획력이 돋보이는 책을 만났다. <정신과 영수증>. 월간 <PAPER>에서 가끔 보던 글인데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처음엔 노이로제에 시달리는 청춘이 정신과를 드니다며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 속에는 참 무릎을 치게 하는 통찰력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면 오늘 산 물건과 영수증을 꺼냅니다. 물건은 제 자리에 놓아두고, 영수증은 꺼내어 시간과 가격, 장소 위에 자신의 기록을 더해 갑니다. 그것을 살 때의 기쁨과 슬픔, 그날의 날씨,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한 사람들과 들려오던 음악에 관하여... 그녀가 스물 여덟 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서른 살 쯤에 결혼을 준비한다면 그 동안 가져왔던 것과는 또 다른 영수증을 가지게 되겠지요.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기묘한 이야기들이 납니다.”

참 대단하지 않은가? 휘리릭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책이지만, 그 어떤 기록보다 우리시대 한 사람의 인생을 가깝게 리얼하게 보여주는 ‘영수증’과 자기 자신 ‘정신’을 결합해 <정신과 영수증>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낸 저자가 참 부럽다.

소비성향으로 나를 본다?

카피라이터가 쓴 영수증 일기

SK텔레콤의 ‘June’과 KTF ‘Drama’의 네이밍을 하고 광고 카피를 쓰기도 했던 정신은 이지아, 김윤원, 사이다이 세 사람의 친구와 함께 한 추억들을 영수증을 매개로 일기 쓰듯이 차곡차곡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다. 편의점의 아이스크림 영수증에서 영화 티켓, 파리행 비행기 탑승권 영수증까지 저자가 이렇저렇 이유로 끼어든 돈을 지불한 다양한 영수증의 사진과 글을 통해 스토리텔링 인생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전사되고 있다.

‘I SHOP therefore I AM!’ 미국의 미디어 아티스트 바버라 크루거가 자신이 제작한 포토몽타주에서 마케트의 명제에 빗대어 한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물신화를 풍자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만큼 그 사람의 성향을 잘 반영하는 것도 없다는 생각에 ‘오호~!’ 했던 말이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의 소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기록! 영수증으로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정신과영수증은 참 기발하고 정직한 자기기록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영수증을 하나하나 모아 짙막한 메모와 함께 영수증 일기장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직업에 따라 스타일에 따라 사람마다 참 다양한 영수증 히스토리북이 만들어질 것 같아 생각만해도 재미있다.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나 결혼정보회사에서 남녀를 소개할 때도 최근 6개월간의 소비내용 증명으로 영수증 기록장을 필수 구비서류로 요구한다면 어떨까? 그 사람의 취미와 인간관계, 성격까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아닐까? 만약 당신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라면 오늘이라도 상대방에게 건강기록부와 함께 영수증 기록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해보자.

김상아 비온드마켓그룹 디지털콘텐츠팀장

◇457호 21면 전문가 서평의 필자는 김남형 홍익대 강사였으며 편집과정에서 이름이 누락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서이문 서술사 총무국 견자동 110-33 Tel : (02)737-8881(대)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마음은 정신적 사상이 상호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 달라이 라마 -

마음 더 오래된 과학,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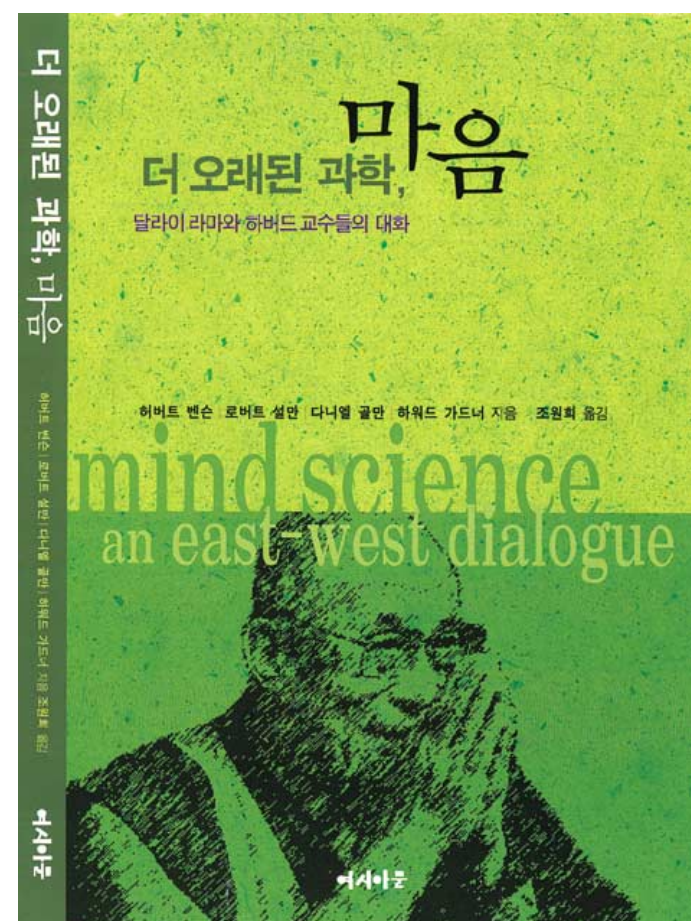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달라이 라마가 인도·티베트 불교학, 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신경생물학, 교육학의 권위자들과 만난 하버드 의대 심포지움에 기반하여 인지, 인식,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199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서양 의료 체계에 마음의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주로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던 심리적(心的)요소를 인정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마약 성분의 진통제 투여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만성 통증 환자에게 동양의 명상 기법을 도입하여 환자 스스로 통증을 받아들이고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통증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통증을 받아들이는 환자가 변해 주위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환자의 심적 요소를 개선하여 삶의 태도나 질을 개선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양의 명상 기법을 도입하였다.

이제 이런 의학계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일까? 그 해답은 하버드 의대의 하버트 벤슨 박사에게 있는데, 그는 달라이 라마의 허가를 받아 80년 초부터 티베트 명상 기법을 포함한 여러 명상기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측정했다.



하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년 / 9,000원